



2011년도가 저물어가면서 서울 광장에 성탄트리와 불을 밝혔다.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서울시 청 앞 서울광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에 가져다 준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빛”이 점등되었다. 22m 높이의 성탄트리에 점등된 이 빛은 2011년 12월 3일~ 2012년 1월 3일까지 한 달간 서울광장의 밤을 밝힌다. 이날 설교를 맡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한 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지연 목사, 김선도 감독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정몽준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문광부 박선규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과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 “오늘 점등되는 성탄트리의 빛이 절망의 소식들의 기쁨의 소식으로 바꾸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구현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수는 가난하고 수난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해방이고 구원이셨다”면서 “성탄트리의 불빛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성탄트리 점등행사는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개발NGO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CTS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가운데 JTNTV지저스타임즈를 비롯 교계 기자들의 열띤 취재와 기도가 있었다.

■사설

성탄

당신의 말 걸기와 '나의 말대꾸' 소통communication을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말 걸기와 나의 말대꾸, 그래서, 당신은 외롭고, 나는 고독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광야, 황량한 빈들에 불러내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당신, 그래서, 당신은 아프고, 당신 따라나선 순례의 길, 나는 지친답니다. 당신과 나만의 이 쓸쓸한 동행, 언제까지 참니까. 이승의 끝 까지라고요. 아니면, 저 세상 넘어, 역겁을 지나 영원까지라고요. 당신의 나를 향한 말 걸기와 나의 말대꾸 사이, 이젠,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까지, 당신의 시도 때도 없는 말 걸기에, 귀를 맞대고 웃으며, 입을 쭉긋거리네요. 산새들이, 풀잎의 어린 벌레들이, 이름도 모를 풀꽃들이 무어라 말대꾸하네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말대꾸하네요. 그래서 당신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나도 참 행복하답니다. 시도 때도 없는, 당신의 말 걸기와 우리들의 말대꾸 사이, 당신도 기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하답니다. 올해도 성탄이 가까웠다. 요한 기지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말씀.道이고, 그 말씀.道이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말하러 오셨다는 것이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말로 소통하기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비극적인 3대 코드는 '빠름과 분주' '소음' '군중'이다. '분주와 빠름'은 '방향과 목표'를 잃게 하며, '소음'으로 '정신과 혼'을 혼들여 놓고, '군중'은 '고독'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버린다. 결국 하나님과 나의 소통communication의 통로가 끊기면, '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삶의 결모습은 화려하나 행복하지 못하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의 한글창제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의 역사 2천년(삼국, 고려, 조선) 중에서 수백명의 왕이 있었으나, 왜 세종대왕을 최고의 지도자로 추상하는가. 중국의 통치 밑에서 언어와 문자, 천문, 시간 따위를 지배받은 우리민족을 언어문자(한글)의 독립과 천문기상(측우기)과 시간(해시계, 물시계)의 독립을 선언하고 실행한 왕이었기 때문이다. 선대왕과 사대부귀족들의 목숨 건 반대와 방해공작과 왕자를 잃으면서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무지한 백성과 글로 소통하기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언어의 소통을 언로言路라고 하며, 글로 소통하는 것을 자로字路라고 했다. 세종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무지하고 가난한 백성을 우리의 쉬운 글로 가르쳐 소통하고자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오백년 전에 만든 우리의 한글이 지금, 우리나라를 IT와 초고속인터넷 1등 강국으로 만든 1등공신이라 것이다. 세계의 수백 개 언어 중에서 우리 한글처럼 빠른 문자는 없다고 한다. 성탄이 가까웠다. 말하신 하나님, 그 말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말하려고, 인간 속으로 내려오시는 날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었는가. 안방에 모시어 단들이 마주앉아 말대꾸할 준비는 되었는가.

예총연 유영섭 목사(순장)대표회장 유임

예총연 '제7회 정기총회'에서 유임된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가맹 교단들 간의 교류와 협력, 일치"를 다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하-예총연)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여의도 래스던호텔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갖고, 유영섭 목사(순장총회)를 대표회장으로 유임시켰다. 이날 유 대표는 교회 제 모습 찾기에 노력하겠다고면서 예총연 가맹 교단들 간의 교류와 협력, 일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정기총회 앞서 1부 예배에서 '본질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한국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권력과 부에만 집착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지상 교회의 변질을 질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예총연이 출범한지 7년이 지났으며, 이 시점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자"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본질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유 대표회장은 "예총연이 비록 작은 교단들의 연합체이지만 겸손함으로,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치있는 기관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잘 감당하자"며 강조했다.

이어 예총연 회원교단 관계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와 목회자', '예총연과 소속 총회, 단체, 교회' 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28개 교단과 2개 단체에서 58명이 참석하여 대표회장으로 유영섭 목사(순장총회),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 회 회장에 이순주 목사(합동개혁), 신학협의회 회장에 고희기 목사(합동예총)를 각각 인준하고, 사무총장은 반정웅 목사(합동예총)를 재 인준하여 3년의 임기를 맡게 됐다.

예총연은 이날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 기도회 모임과 춘계 수련회, 신학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가맹 교단의 발전과 목회자 교육을 진행하자는데 목표를 정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신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회장 : 유순임 목사(열린), 김의웅 목사(합동동행), 황병철 목사(합동개혁), 신숙자 목사(한울림), 박경주 목사(보수합동), 오세택 목사(국제연합개혁), 전중현 목사(순장), 강요셉 목사(합총) 서기: 강용희 목사(하나) 부서기: 권용태 목사(개혁보수) 회계: 전승웅 목사(합동은총) 부회계: 김인식 목사(영화선교회) 감사: 이주희 목사(서울침례교), 유재관 목사(보수) 상임총무: 한동철 목사(피어선)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신년하례회 공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총회장 상흥경 목사 수원송석교회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부천은천교회	 서기 장창운 목사 열린천양교회	 부서기 정일량 목사 항기로운교회	 회의록서기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부회의록서기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회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유윤주 목사 지주촌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교회	 감사 정규남 목사 주복음교회	 감사 이규 목사 동산교회	

희망2012년 대망의 새해 화합과 단결로 새 출발하는 신년하례에 웨신총회 동역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 외 임원일동

- 일시: 2012년 1월 5일(목) 오전11시
- 장소: 유니온 뷔페 (☎ 02-499-7000) (서울시 광진구 성수2가 3동 315-70)
- 전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